



## “가족과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님”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 열어 진정한 사회참여 모색

최근 종교편향 사태로 불교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외침의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재양성이 교세 확장의 전제조건이며 성불이 지상 불국토 건설의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은 불제자의 본분사인 수행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리가 불교의 뼈대라면 수행은 골수와 같다. 수행이 따르지 않는 불교교리는 이념에 그치고, 교리 없는 수행은 의도와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중앙승가대 대학원이 실천 수행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종석)은 10월 21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승가의 실천수행’을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학원장 종석 스님을 비롯해, 화엄학자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정토학자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밀교학자 김영덕 교수(위덕대)는 각각의 전공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회참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불법은 인간사회 보편진리**=종석 스님은 기조발제 ‘불교와 실천수행’에서 “불법은 석가모니불이 설한 법이라는 의미지만, 그 법은 부처님이 설했던 설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진리”라 말했다. 불법이 생활하는 곳곳에 스며들어 사회를 진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대승불교 이념과 보살도 정신이 쇠퇴한 것은 수행과 실천이 부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스님의 발언은 ‘불교연구는 성행 하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불교가 종교라는 틀에 안주해 복지 등 사회참여를 등한시한 것은 결국 수행을 게을리 한 불교계 구성원의 몽매한 때문이다.

**#이웃을 만드는 것이 여래를 공경하는 것**=**<화엄경>**에는 환승중생원(恒順衆生願) 즉,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따르고 들어주기로 작정하는 서원이 있다. “중생을 존중하는 것은 여래를 존중하는 것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화엄경>** 구절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법당이 봉안한 목불, 절불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임을 뜻한다.

‘화엄교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을 발표한 본각 스님은 ‘<화엄경>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속에 부처와 보살, 중생이 함께 제불의 덕화를 꽃피우고 실천하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대승령과 국민이 서로 화합과 상생, 소통해 화엄세계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을 감호수로 적시는 실천수행 법칙 스님이 시작한 ‘맑고 향기롭게’처럼 불교적 수행이 시민운동으로 대중 속에서 호흡해야 할 필요성을 엿보인 대목이다.

**#좌선주의에서 벗어나 동중선으로 나가야**=성본 스님은 ‘선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에서 “좌선 수행은 앉거나 누는 형식이 아닌 깨어있는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 지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같은 성본 스님의 주장은 수행열풍에 출가자들이 출선수법할 것과 불자들의 주인공적인 삶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행으로 현실 정토 이뤄야**=근현대 선지식인 만공 스님은 현실 정토의 근원으로 참선을 통한 ‘마음 정토’를 중시했다. 반면에 만해 스님은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해 현실 정토를 이루고자 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예토와 정토가 다르지

않다는 불이법은 수행을 통한 마음 정토와 사회참여로 이루는 현실 정토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태원 스님은 ‘정토교학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을 통해 수행을 통한 현실정토 구현이 불교의 사회참여 수단임을 강조했다.

한편 **<화엄경>**에는 “맑이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물에 들어간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아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불자들의 실천수행만이 치솟는 범열로 삭막한 세상을 감호수로 적시며, 화석화되는 불교에 생기를 불어넣는 길이다.

조동섭 기자 csetana@buddhapia.com



10월 22일 고려대를 향한 방문한 개운사 비대위 소속 사부대중 200여 명이 고려대측의 무성리한 대응에 항의해 빗속에서 정진 법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기자

## 보타사 마애불 보존 분쟁 ‘잠정 합의’

고려대, 진동계측 등 개운사측 요구 수용

고려대 기숙사 신축 공사로 인한 마애불 인근의 진동계측에 합의하고, 계측 때까지 공사 중단에 합의했다. 이기수 총장은 공사 중인 기숙사 층고의 하향조정과 건물간격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살필 진동계측은 개운사와 고려대 양측이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이다. 개운사측은 진동계측 결과 고려대 기숙사 공사가 수행환경과 마애불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공사를 전면지지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해 스님은 “계측 후 결과에 따라 친일 고려대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한다는 내용으로 대외홍보에 담을 갖고 신중중인 고려대 기숙사 공사의 일시중단과 실무진의 상시적 청의법회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10월 22일 개운사 및 보타사 대종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으로 구성된 개운사 비대위 200여 명의 고려대 항의방문으로 성사됐다.

다. 개운사 비대위가 고려대 정문 앞 집회 후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총장실이 있는 본관에 이를 때까지도 고려대측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 법해 스님이 고려대측의 무성리한 태도를 질타하며 항의서한을 찢자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고 대중들이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초암 스님(보타사 주지)은 우중에 3000여 정진을 해 시위 동참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 社告

##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 주무부서 법보시 신문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에 따라 문화재청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회 등 주요 부서에 본지 703호부터 발송합니다.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신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계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와 1,000원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명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향산화 원력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성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음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새연재 웰빙**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18면

# 종교차별금지 입법추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

모입시다! **11월 1일(토) 오후 2시**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으로!!



과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든 당신이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로 종교평화 만들겠습니다.

**종교차별금지 입법 실현!!**  
**성시화 운동 참여 공직자 참회!!**